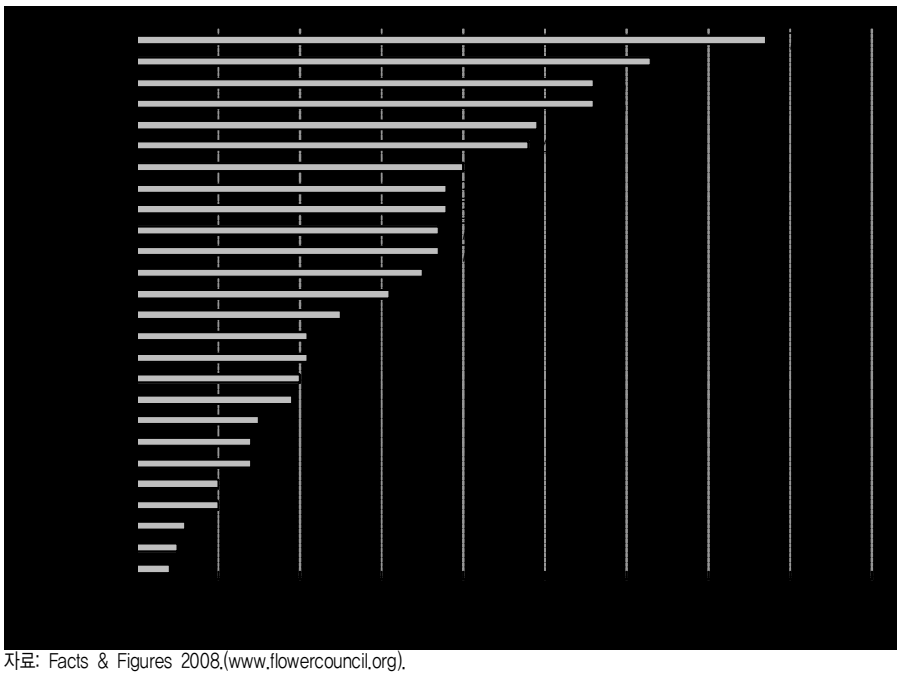
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

우리나라의 1인당 화훼 소비액은 2008년 기준 17,847원이다. 네덜란드 11만원, 스위스 15만원, 노르웨이 16만원 등 화훼 소비가 많은 선진국들에 비해 격차가 매우 크고 이웃 일본에 비교해도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. 이는 근본적으로 꽃 소비패턴이 일상화되지 못하고 특수소비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이다. 또한 꽃 소비가 저조하기 때문에 화훼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, 설상가상으로 농자재 가격, 유가 등 생산비가 상승하여 국내 화훼농가의 소득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(이광우, 2010).

이번 달에는 세계 주요국별 1인당 화훼 소비액을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았다. 자료는 네덜란드 화훼협회(FCH:Flower Council of Holland)에서 매년 발표하는 Facts & Figures를 참조하였다.

그림 1 주요국별 절화류 1인당 소비액(2007년)

단위: 유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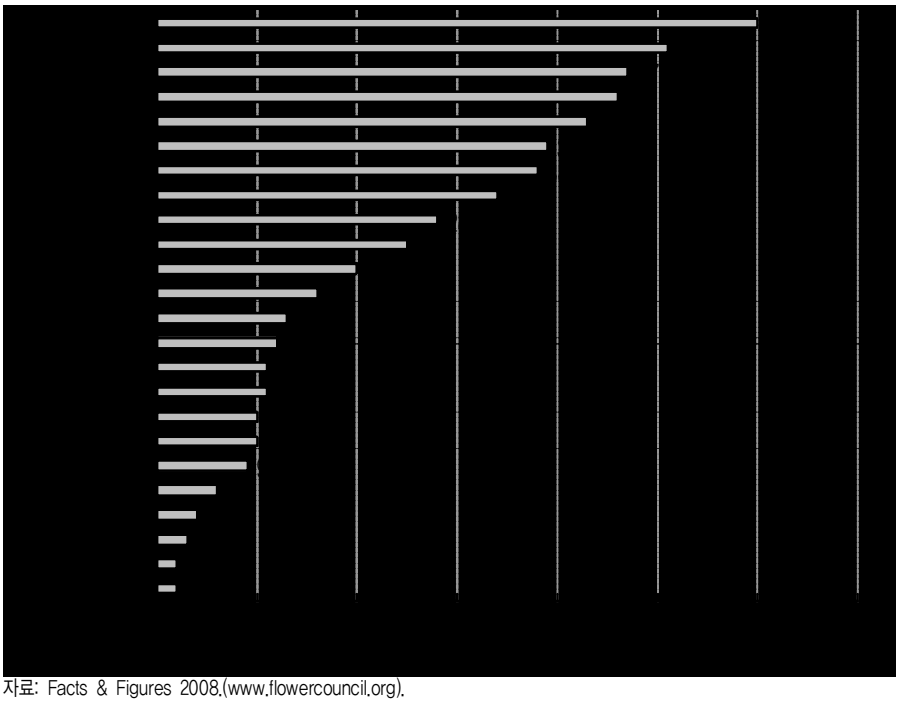
자료: Facts & Figures 2008.(www.flowercouncil.org).

주요 선진국의 1인당 화훼 소비액은 36~123유로(한화 6~20만원) 수준이며, 1인

당 화훼 소비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나타났다. 부류별로 보면, 절화류는 스위스가 77유로로 가장 높았고, 분화류는 노르웨이가 60유로로 1인당 소비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.

그림 2 주요국별 분화류 1인당 소비액(2007년)

단위: 유로



자료: Facts & Figures 2008.(www.flowercouncil.org).

선진국 대비 화훼 소비액 격차가 크기 때문에, 소득 수준 증가와 함께 일상적인 화훼 소비문화가 생활화된다면 우리나라의 화훼 소비도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참고자료
Facts & Figures 2008.(www.flowercouncil.org).
이광우, 「꽃이 있는 사무실」, 국민일보 기고 2010.3.16.

작성자: 윤종열, 민자혜